금주의 법구-〈법구경〉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0월 3일)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감동 이젠 스크린으로 만난다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
7일 CGV파카디리서 언론시사회
1167km, 43일 여정 면면 담아
참가 스님들 솔직 인터뷰 '눈길'
11월 16일 전국 상영관서 개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해내야 한다. 이것은 내 생의 마지막 기회다."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 대종사가 눈물 머금고, 소회를 밝힌다. 그 소회는 자못 비장하다. 서울 성북구 전등사 회주로서 간화선 대중화에 평생을 매진한 종단 원로가 왜 이 같은 소회를 전하고 있는 걸까.

이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간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참가한 순례단원 동명 대종사의 영상 인터뷰 일부다. 43일, 1167km의 순례 여정 속 스님들의 절절한 구도열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됐다.

11월 7일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에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43일 여정을 담은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의 기자단 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시사회에는 불교계 기자뿐 아니라 순례에 동참했던 순례단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영화는 KBS에서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다룬 '부처님과 함께 걷다' 특집 다큐를 저본으로 한다. 다큐 '부처님과 함께 걷다'는 종교 관련 다큐로는 이례적으로 재방송을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하지만 50분 정도의 러닝타임으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여정과 의미를 모두 담기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참여한 이규철PD를 감독으로 새롭게 영상들을 편집해 다큐 영화로 제작하게 됐다. 순례에 동참한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에서 영상 협력이 이뤄져 영화의 질을 높였다. 영화의 러닝타임도 81분으로 대폭 늘어났다.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사르나트(녹야원) 입재식을 시작으로 보드가야-영축산-라즈기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로 이어진 순례 여정을 따라간다. 그 여정에는 번잡한 내레이션이 없다. 오직 순례에 참가한 스님들의 숨소리와 현장 육성, 인터뷰가 다큐의 서사를 이끈다. 그러기에 순례의 순간순간의 진정성이 모두 드러난다.

실제 스님들의 인터뷰는 순례에 대한 의미와 소회부터 수행과 출가, 부모님 이야기 등 다양하게 이어진다. 삭발염의하고 먹물 옷과 가사장삼을 두른 엄숙한 수행자로만 인식됐던 스님들의 진솔한 모습들은 가슴 한편에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걷는다'는 행위는 어찌 보면 구도 여정이면서 우리네 인생이기도 하다. 한걸음 한걸음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해 걷다보면 목표한 바에 도달하게 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도 마찬가지였다. 그 길의 끝에서 스님들이 얻어낸 사유의 결과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걸으면서 알게 된 것은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이제는 이 길이 외롭지 않다."

"진정한 부처는 중생을 위해 길을 걷는 사람이다."

영화에서 보이는 깊은 사유를 담아낸 스님들의 인터뷰. 부처님 성지와 순례지의 수려한 풍광을 담아낸 수준 높은 영상들은 그 자체가 법문이다.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우리에게 왜 전법을 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던진다.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 이제는 쇠락해 흔적만 남아있는 상황에 스님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도 순례단에 꽃비를 뿌리며 환영하고, 순례단 발에 입을 맞추며 예경하는 모습에 불법(佛法)의 종자가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그런 모습에 감읍한 순례단은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도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전법 의지를 다진다.

영화의 첫 머리, 샤르나트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21세기 전도선언을 발표한다. 그리고 회향의 자리에서 다시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에 '전법'의 화두를 던진다.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를 다음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 대장정의 면면을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이규철 감독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도 '진정성'이다. 순례대중의 구도 열정과 의미가 대중에게 온전히 다가갔으면 해서다.

이규철 감독은 "부처님이 걸었고, 스님들이 걷는 구도의 길을 각자의 스님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며 걸었는지 담아내려 했다"며 "순례 참가 스님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구도자의 이야기로 귀결됐다. 이를 따라가면 관객들도 불교가 무엇이며, 왜 스님들이 걷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오는 11월 16일 전국 100여 개 극장에서 개봉한다.



4년 만에 만난 한중일 불교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동북아시아 3국 불교계가 4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다. 11월 7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세계평화기원법회 현장. 3국 불교계의 황금 유대를 확인하며 모든 전쟁의 종식을 기원한 법석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다수 참가했다. 사진은 한국대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 중국대표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 일본대표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다케 가쿠쇼 스님을 선두로 각국 대표단이 봉은사에 들어서는 모습. 〈관련기사 2면〉
글 · 사진=윤호섭 기자

중앙승가대 역사로 남나…동국대와 통폐합 착수

11월 9일 이사회서 결의, 재정위기 극복 못해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일환
중승대 대책위, 5개월 간 회의
별다른 자구책 찾지 못해 결단

지속적인 출가자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앙승가대가 결국 별다른 자구책을 찾지 못한 채 동국대와의 통폐합 논의에 나선다. 승려전문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보다 심각하게 겪으면서 법인과 학교 모두 힘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와의 협의과정은 남았지만 통폐합이 이뤄지면 1979년 중앙승가학원으로 문을 열어 2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중앙승가대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134차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승가학원-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통폐합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이사회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앙승가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약 5개월간 6차례의 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이사장 진우 스님도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중앙승가대학 운영 등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혜로운 의견을 피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떼며 사안의 심각성을 내비쳤다.

회의가 끝난 뒤 법인 사무처장 설암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스님에 따르면 법인 통폐합은 사실상 조계종 교육원이 수년 전부터 제시한 승가기본교육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육원장으로 재직 당시도 해당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중앙승가대는 각 교구본사의 강원, 율원, 기본선원 등과의 통폐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 동국대와의 통폐합으로 선회했다.

설암 스님은 "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조계종 교육원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동문들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사찰경제가 축소돼 학교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통폐합에 앞서 동국대의 입장도 확인해봐야 한다. 일단은 승가학원 측에서 통폐합에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안건 명칭은 통폐합이지만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만큼 사실상 중앙승가대가 동국대에 흡수되는 모양새를 띨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와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승가학원은 중앙승가대가 불교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존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설암 스님은 "통폐합이 이뤄지더라도 승가뿐 아니라 재가자를 위한 명상이나 종무학과 등으로 학제 폭을 넓혀 불교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설립이념이 유지됐으면 한다"며 "승가대 명칭만 바뀔 뿐 근본이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동국대가 승가학원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통폐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는 교육부 승인을 받은 4년제 사립대학으로 통폐합을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